Artist

요제프 슈파체크(Josef Špaček) | Violin

2024/25 시즌 주요 일정으로는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릴 국립 오케스트라와의 데뷔 무대와 더불어
함부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필하모니, 보훔 심포니커, 베른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프라하 방송교향악단과 함께하는 함부르크 엘프필하모니에서의 공연이 포함된다.
이전 데뷔 무대로는 밤베르크 심포니,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카머아카데미 포츠담, WDR, SWR, hr 방송 오케스트라,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파리 오케스트라,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RAI 토리노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도쿄도 교향악단, 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이 있다.

그는 토마스 아데스, 이르지 벨로흘라베크, 아냐 빌마이어, 세묜 비치코프, 니콜라스 콜론, 제임스 콘론, 만프레트 호네크,
야쿠프 흐루샤, 엘리아후 인발, 요아나 말비츠, 토마시 네토필, 페트르 포펠카, 크리스티나 포스카, 미하엘 잔덜링,
토마스 쇠네르고르, 크시슈토프 우르반스키, 데이비드 진먼 등 저명한 지휘자들과 협연해 왔다.

수프라폰 레이블에서 이르지 벨로흘라베크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드보르자크와 야나체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수크의 환상곡을 녹음한 음반은 극찬을 받았다.
선데이 타임스는 "바이올리니스트의 넘치는 개성과 깊이있는 숙고를 통한 해석으로 보여준 기교는
이 정교하게 구성된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이며, 이 레퍼토리에서 슈파체크느는 오늘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평했다.
이 음반은 선데이 타임스의 '금주의 음반', 뮤직웹 인터내셔널의 '이달의 음반' 및 '올해의 음반'으로 선정되었으며,
디아파종에서 별 다섯개를 받았다. 그 외 주요한 녹음으로는 수프라폰에서 발매한 피아니스트 미로슬라프 세케라와
함께한 스메타나, 야나체크,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을 담은 리사이틀 음반(수프라폰),
낙소스 레이블의 H.W. 에른스트의 바이올린 솔로 및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집,
그리고 초기 시절 외젠 이자이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CD가 있다.

그는 뉴욕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이차크 펄먼을, 필라델피아 커티스 음악원에서 이다 카바피안과 하이메 라레도를,
프라하 콘서바토리에서 야로슬라프 폴틴을 사사했다.
그는 브뤼셀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입상자일 뿐 아니라, 뉴질랜드 마이클 힐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덴마크 칼 닐센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뉴욕 영 콘서트 아티스트 국제 오디션에서도 최고상을 수상했다.

요제프 슈파체크는 잉글스 앤 헤이데이(Ingles & Hayday)로부터 후원받은 악기인
1732년경 제작된 "르브룅; 부티야르(LeBrun; Bouthillard)" 과르네리 델 제수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Artist

이슈트반 바르더이(István Várdai) | Cello

이슈트반 바르더이는 첼로 독주, 실내악, 및 관현악 레퍼토리를, 영혼을 담아 연주할 때 보여주는 즐거운 에너지, 리드미컬한 활기, 우아한 품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란츠 리스트 실내악단 예술 감독으로서 네 번째 시즌을 맞이한 그는 지속적으로 영감을 주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헝가리 카포스트페스트 실내악 페스티벌Kapostfest Chamber Music Festival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음악가들을 초청, 바흐부터 페테르 외트뵈시(Péter Eötvös)에 이르는 레퍼토리를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며 솔로이스트로서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다.

2024/25 시즌, 이스트반 바르더이는 투간 소키예프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와 데뷔 무대를 가질 예정인데, 시즌 초반 욘 스토르고르스(John Storgards)의 지휘로 BBC 필하모닉과 함께 녹음한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2번을 연주한다. 또 다른 주요 일정으로는 하이라이트는 게르겔리 머더러시(Gergely Madaras)가 이끄는 로열 리에주 필하모닉과 함께 벨기에와 헝가리를 순회하며 엘가 첼로 협주곡을 연주하는 것이 있다.
NFM 브로츠와프 필하모닉으로 돌아와서는 모차르트, 하이든의 작품을 연주 및 지휘하고, 베토벤 교향곡 2번도 지휘한다.
이슈트반 바르더이와 프란츠 리스트 실내악단은 리스트 아카데미 그랜드홀에서 열리는 자신들의 시리즈 공연에 FLCO 뤼시엔 르노댕 바리, 로만 시모비치, 졸탄 페예르바리를 초청한다. 국제 투어는 독일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페스티벌, 크레모나의 스트라디바리 페스티벌, 빈 무지크페라인으로 이어지며,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을 직접 연주하며 지휘한다.

열정적인 실내악 주자로서 바르더이는 비킹구르 올라프손, 안드라스 쉬프, 유리 바슈메트, 기돈 크레머, 장-에플람 바부제, 미샤 마이스키,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 리자 페르슈트만 등과 함께 세계의 주요 공연장에서 연주해왔다.

바르더이의 최신 음반 <시네르기아(Szinegia)>는 버르토크, 하르트만, 코다이, 베이너와 같은 작곡가들의 리듬과 민속 전통을 기리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그는 클라리넷 연주자 파블로 바라간 및 프란츠 리스트 실내악단과 협력해 이 콘셉트를 완성했으며, 앨범은 악첸투스(Accentus) 레이블에서 발매되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이자이 레코드에서 프로코피예프, 엘가의 첼로 협주곡을 녹음했으며, 브릴리언트 클래식스에서 발매된 바흐 첼로 무반주 첼로 모음곡 녹음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는 에스터 사라즈가 감독하고 트리온 필름이 제작한 새 다큐멘터리 "바르더이 – 논 솔로 첼로(VÁRDAI - non SOLO CELLO)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2014년 ARD 국제 음악 콩쿠르와 2008년 제네바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콩쿠르에서 성공을 거둔 이스트반 바르더이는 2019년 국제 차이콥스키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그는 2005년 자신이 수학한 바 있는 빈 국립음악예술대학교에서 고(故) 하인리히 쉬프의 뒤를 이어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슈트반 바르더이는 재클린 뒤 프레가 사용했던 1673년 '뒤 프레-하렐(Ex du Pré-Harrell)'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사용한다.

Artist

토비아스 펠트만(Tobias Feldmann) | Violin

영국 텔레그래프로부터 "진정한 발견"이자 "매혹적이고 흠 없는 서정성"이라는 찬사를 받은
독일 바이올리니스트 토비아스 펠트만은 동시대의 가장 매력적인 음악인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다채로운 연주는 양식적 유연성, 강렬한 무대 존재감, 감성적 깊이가 두드러진다.

2024년 BBC 필하모닉과 함께 로열 앨버트 홀에서 BBC 프롬스 데뷔 무대를 가졌으며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독일 음악 콩쿠르, 요제프 요아힘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의 입상자인 그는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WDR 심포니 오케스트라, NDR 라디오필하모니 하노버, 바르셀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BBC 스코티시 심포니, BBC 웨일스 국립 오케스트라, 본머스 심포니, 헬싱키 필하모닉, 레지덴티 오케스트라,
콘세르트헤바우 챔버 오케스트라, 앙상블 레조난츠, 모스크바 국립 심포니, 브뤼셀 필하모닉, 유타 심포니,
퀘벡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 악단과 협연해왔다. 그는 나탈리 슈투츠만, 다비드 아프캄,
토마스 구가이스, 욘 스토르고르스, 니콜라스 콜론, 로렌초 비오티, 라인하르트 괴벨, 파비앵 가벨, 요아나 말비츠,
마린 알솝과 같은 지휘자들과도 협연했다.

열정적인 실내악 연주자로서 그는 빈 콘체르트하우스,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헤바우, 슈베르티아데 슈바르첸베르크,
빈터페스트, 루이지애나 현대 미술관, 그리고 라인가우 및 로켄하우스 페스티벌 등의 무대에 섰다.
또한 비올리스트 리즈 베르토, 첼리스트 율리안 슈테켈과 함께 고정적으로 현악 삼중주단 활동도 하고 있다.

그의 음반 목록에는 게누인과 알파 클래식스 레이블의 녹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장-자크 캉토로프가 지휘하는
리에주 왕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시벨리우스와 라우타바라의 바이올린 협주곡 음반도 있다.
최근에는 라인하르트 괴벨이 이끄는 WDR 쾰른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담은
CD가 발매되었다.

토비아스 펠트만은 불과 26세의 나이로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에 교수로 임용되어
독일 역사상 최연소 교수 중 한 명이 되었다. 베를린 필하모닉의 초청으로 객원 악장을 역임했으며,
2022년 10월부터는 독일 라이프치히의 명문대학인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디 국립음악연극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1769년 나폴리에서 제작된 니콜로 갈리아노 바이올린을 사용한다.

Artist

아드리앙 라 마르카(Adrien La Marca) | Violia

파이낸셜 타임스가 "진정 순수한 재능"이라 칭송하고 르 몽드가 "새로운 비올라 영웅"이라고 묘사한 아드리앙 라 마르카의 연주는 깊은 표현력, 숙련된 테크닉, 풍성하고 깊고 윤기 나는 사운드가 특징이며, 무대를 사로잡는 카리스마와 더불어 관객들과 단번에 정서적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2014년 프랑스 '빅투아르 드 라 뮈지크' 신인 부문 수상자인 라 마르카는 이후 파리 필하모니, 런던 위그모어 홀,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헤바우,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빈 무지크페라인, 루브르 오디토리움, 슐로스 엘마우, 샹젤리제 극장, 파리 시립 극장, 살 가보,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페스티벌, 슈베르티아데 호에넴스 등 권위 있는 무대에서 연주해왔다. 그는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폴란드 국립 라디오 교향악단, 홍콩 신포니에타, 툴루즈 카피톨 국립 오케스트라, 레 시에클 등 저명한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열정적인 실내악 연주자로서 그는 르노 카퓌송, 에드가르 모로, 다비드 프레, 파벨 콜레스니코프, 엘레나 바슈키로바, 그리고 반 카위크, 에르메스, 에벤 콰르텟과 등과 정기적으로 공연하고 있다.

2016년 라 돌체 볼타 레이블에서 발매된 그의 첫 앨범 <잉글리시 딜라이트>는 스트라드, 그라모폰, 스트링스 매거진, 르 몽드, 르 피가로, 디아파종, 클라시카 등의 언론의 전폭적인 찬사를 받았으며, 디아파종 도르, FFFF 텔레라마, 쿠 드 쾨르 FNAC, 프랑스 뮈지크, 라디오 클라시크, 그라모폰 초이스 등에서 수많은 상을 받았다.

2020년 라 돌체 볼타에서 발매한 두 번째 앨범 <히어로즈>에는 리에주 왕립 필하모닉, 크리스티안 아르밍과 함께한 월튼의 비올라 협주곡, 그에게 헌정된 그웨나엘 마리오 그리시의 비올라 협주곡(세계 초연), 그리고 비올라 독주와 오케스트라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녹음된 프로코피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수록되었다. <히어로즈>는 프랑스 및 국제 언론으로부터 폭넓은 찬사를 받았으며, 르 피가로에서 '올해의 앨범'으로 선정되었다.

1989년 프랑스 엑상프로방스의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아드리앙 라 마르카는 4세에 피아노와 비올라를 시작했다. 16세에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 입학하여 장 슐렘을 사사했으며, 이후 라이프치히에서 타티아나 마주렌코, 베를린에서 타베아 치머만에게 수학했다. 학업 기간에도 다양한 음악 아카데미에 정기적으로 초청받아 세이지 오자와, 발레리 게르기예프, 기돈 크레머, 안드라스 쉬프, 메나헴 프레슬러 등 영감을 주는 음악가들과 함께 작업할 기회를 가졌다. 2016년, 라 마르카는 권위 있는 라가르데르 재단의 장학금을 수여한 최초의 클래식 음악가가 되었다. 그는 방크 포퓔레르 재단의 수상자이며, 로르 뒤 랭과 사프란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 윌리엄 프림로즈 콩쿠르, 라이오넬 터티스 콩쿠르, 요하네스 브람스 콩쿠르 등 다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다수 입상했다.

라 마르카는 크레모나에서 1780년에 제작된 니콜라 베르곤치 비올라를 부보 뮤직 재단으로부터 대여받아 연주한다.

Artist

즐라토미르 펑(Zlatomir Fung) | Cello

지난 시즌 펑은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주 아티스트로서 런던 캐도건 홀에서 세 차례 공연을 했고, 오케스트라와 함께 영국 투어를 진행했다. 북미에서는 블러섬 음악제에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협주곡 데뷔를 했으며,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도 협연했다. 나아가 웨이우잉 페스티벌에서 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가오슝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데뷔를 하였으며, 일본, 홍콩, 대만에서 광범위한 투어를 진행했다. 최근 주목할만한 다른 협연 무대로는 뉴욕 필하모닉,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릴 국립 오케스트라, BBC 필하모닉, 댈러스 심포니와의 데뷔가 있다.

2024/25 시즌에는 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또다시 협연하며 로열 필하모닉홀에 데뷔한다. 또한 폴란드 국립 방송 교향악단, 바르셀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조르제 에네스쿠 필하모닉과 데뷔 무대를 갖는다. 더 나아가 대만으로 돌아가 얍 판 츠베덴이 지휘하는 에버그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차이콥스키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연주하고, 안드레아스 델프스가 지휘하는 로체스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한다. 뉴욕, 보스턴에서 연주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을 투어하며 리사이틀 무대도 갖는다.

2021년 카네기 홀 리사이트 데뷔 무대를 가졌으며, 이에 대해 바흐트랙(Bachtrack)은 그를 "미다스의 손길을 지닌 드문 음악가 중 한 명으로, 연주하는 모든 악보를 금빛 아우라로 감싸는 능력이 있다"고 평했다. 최근 주요 공연으로는 위그모어 홀 재공연, 베르비에, 드레스덴, 야나체크 5월, 치난달리 페스티벌, 첼로 비엔날레, 라호이아 실내악 소사이어티, 체임버페스트 클리블랜드, 아스펜 뮤직 페스티벌 출연 등이 있다.

펑은 정통 레퍼토리에 대해 숙련된 연주를 선보이는 동시에, 진은숙, 캐서린 벌치, 애너 클라인 등 현대 작곡가들의 작품을 깊이있게 해석하며 그 레퍼토리의 심오함을 탁월하게 전달한다. 2023년에는 젬마 뉴의 지휘로 댈러스 심포니와 함께 캐서린 벌치의 <위스퍼 협주곡>의 세계 초연을 맡았는데, 이 작품을 헌정받은 연주자로서"입이 떡 벌어질 만큼 눈부신 연주를 선보였다"(댈러스 모닝 뉴스)는 평을 받았다.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첼로 부문 1위를 차지했다. 2017년 영 콘서트 아티스트 국제 오디션과 2017년 아스트랄 내셔널 오디션에서 우승했으며, 2018년 앨리스 & 엘레노어 쇤펠트 국제 현악 콩쿠르, 2016년 조르제 에네스쿠 국제 첼로 콩쿠르, 2015년 요한센 국제 영 스트링 플레이어 콩쿠르, 2014년 스털버그 국제 현악 콩쿠르, 2014년 어빙 클라인 국제 콩쿠르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2016년에는 예술 부문 미 대통령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고, 크론베르크 아카데미 첼로 마스터클래스에서 란트그라프 폰 헤센 상을 수상했다.

불가리아와 중국 혈통을 가진 즈라토미르 펑은 세 살 때 첼로를 시작했으며, 라비니아의 스틴스 뮤직 인스티튜트, 하이페츠 국제 음악원, 뮤직알프, 아스펜 뮤직 페스티벌 앤 스쿨에서 펠로우십을 받았다. 코브너 펠로우십의 자랑스러운 수상자기도 한 펑은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리처드 아론과 티모시 에디의 지도를 받았다. 2024년, 펑은 24/25학년도부터 첼로 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펑은 2022년 보를레티-부이토니 트러스트 펠로우십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는 두 대의 명기를 연주하는데, 한 대는 후원자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 1735년경 제작된 도메니코 몬타냐나 첼로이고, 다른 한 대는 일본음악재단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 1696년 제작된 '로드 에일즈퍼드(Lord Aylesford)' 스트라디바리우스이다.